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4. 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美 정부, 아프가니스탄 철군 보고서 의회 제출

- 4.6 미국 정부는 '21.8월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군시킨 「바이든」 대통령의 결정은 불가피했지만 옳은 판단이었고,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「트럼프」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
※ 언론은 「바이든」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

○ 美 언론, '美 정부가 부르키나파소 軍政 지원'

- 4.8 WSJ은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하디스트를 억제하고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 군사 정권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
※ 美 현행법은 쿠데타로 집권한 해외 군부 정권에 대한 군사지원을 금지

유럽

○ 튀르키예, 이스라엘 회교사원 무력공격 강력 비난

- 4.6 「에르도안」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5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라마단 기간 중에 東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지인 '알-아크사' 회교사원을 경찰 주도로 공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
※ 이스라엘 군·경부대는 同사원 안으로 진격해서 수십명의 팔레스타인 참배자를 구타하고 체포, 이 과정에서 최소 12명이 부상

○ 러시아 무장괴한, 조지아 인근지역에서 경찰 총격 테러

- 4.6 언론은 러시아 서남부 잉구셰티아 공화국*의 말고벡市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으며, 同사건의 용의자는 4명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대치 중에 발포한 것으로 보도
* 잉구셰티아는 과거 체첸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 현재 러시아 연방 소속의 자치공화국이며, 무장세력과 교전이 산발적으로 발생

아 · 태평양

- 방글라데시, 남동부서 叛軍 간 총격전으로 8명 이상 사망
 - 4.8 언론은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* 인근에서 경쟁 반군 조직인 쿠키친민족전선(KNF)과 연합인민민주전선(UPDF)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해 8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
 - * 치타공 구릉지대는 반군의 소요 등으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며 지난해 10월부터 관광객의 접근까지 통제된 상태라고 부언
- 파키스탄, 테러단체 지도자 체포 후 대테러 작전 선언
 - 4.9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7일 발로흐 국민군(BNA) 창립자 겸 최고 지도자인 「굴자르 이맘 샴베이」의 체포사실을 공개하며 국내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한 대대적인 대테러 작전을 선언
 - ※ 한편 카라치 안보 분석전문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내부 정치 혼란 해결 전까지는 BNA의 반란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

중 동

- 이란, 7년여 만에 UAE 주재 대사 임명
 - 4.6 언론은 이란 외무부가 지난 5일 「레자 아메리」를 UAE 주재 이란 신임대사로 지명했으며, 이번 이란의 UAE 주재 대사 임명은 지난 '16년 이후 7년여 만이라고 보도
 - ※ 이는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부언
- 사우디, 예멘 후티 叛軍과 평화 협상 시작
 - 4.9 언론은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예멘 수도 사나를 방문해 후티 叛軍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회담을 진행, 6개월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
 - ※ '14년 시아파인 叛軍과 수니파인 정부軍간 내전이 시작하고 이란(시아파)과 사우디(수니파)가 지원하였으나, 최근 중국 주재로 兩國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예멘 정세에 변화가 발생

ISIS의 아프간 카불 대통령 궁 자살폭탄 테러 사건

- '17.4.12 미상인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대통령궁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, 경비병 등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
 - ※ 同 테러는 정부청사 건물들이 밀집한 곳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발생
 - 내무부는 “자살폭탄 테러범이 대통령 궁 행정실 밖에서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트렸다”고 발표
- 사건 직후 ISIS는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임을 자처하며 “공격은 계속 될 것”이라고 언급
- 한편,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
 - “테러단체의 도시·모스크·학교 등을 겨냥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으며,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”며 비난 성명을 발표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ISIS(이라크·레반트 이슬람국가)

- (목 표)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('04.4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
- (조직규모) 약 3.5만명('15.7, 美 CIA 추정)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보코하람, 우즈베크 이슬람운동, 알마크디스 등 3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북부 지역
- (활동수법) 시리아 동부, 이라크 서북부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공방전 전개 및 바그다드 등에서 정부청사, 시아파사원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활동) ① '12.7 바그다드 및 주요도시 동시다발 폭탄테러(사망 102, 부상 264)
 ② '13.9 바그다드 사드르市 장례식장 자폭테러(사망 72, 부상 120)
 ③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